

ICT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정도 분석 : 재벌 계열사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노규성*, 김신표**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A Analysis on the Extent of Realiz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ICT Industry : with Focus on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Kyoo-Sung Noh*, Shin-Pyo Kim**
Dept. of BA, Sunm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nsult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 간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군의 두 집단은 평균 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군 간 경제민주화 유형은 매출액, 자산 및 영업이익에서는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미실현 구조를 보여주었고, 당기순이익은 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를 보여주었다. 셋째, 외형상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 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경제민주화, ICT산업, 재벌, 성장성, 수익성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xtent of realization of economic democracy between the subsidiary ICT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the KOSDAQ listed ICT companies with focus on growth and profitability.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ollowing were verified.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all aspects of the subsidiary ICT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the KOSDAQ listed small and medium ICT companies, including growth and profitability. Second, the pattern of economic democracy between two groups displayed relatively unrealized economic democracy structure. Third, It was found that KOSDAQ listed small and medium ICT companies were relatively much more difficult situations than the subsidiary ICT companies of conglomerates.

Key Words : Economic Democratization, ICT Industry, conglomerates, growth, profitability

Received 18 April 2013, Revised 13 May 2013
Accepted 20 May 2013
Corresponding Author: Shin-Pyo Kim(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Email: master@kefori.co.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대한민국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추구하여 나름대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1)또 다른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2)밑 빠진 독, 원천기술의 부재와 편중된 수출구조, (3)청년들은 휴식, 가계는 적자, (4)넘쳐나는 외국자본, 요동치는 주가와 환율 등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10].

어려운 상황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업계도 마찬가지이다. 정보통신산업 내 대기업은 충분한 자금과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과는 점차 축소되어 갔다[6]. 특히, 대기업의 횡포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최소화, 재벌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8].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취약해 재벌의 ICT 대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많은 중소 ICT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은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ICT 산업내 대·중소기업간 경제민주화 실현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ICT 분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ICT 분야 대·중소기업간 성장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현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ICT 중소기업의 재무자료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지만, 중소기업 재무자료 수치의 영세성에 기인한 비일관성과 비교분석의 난이성 등으로 분석대상을 재벌계열사 ICT기업 13개 업체와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 40개 업체로 제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제민주화의 출현과 의미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던 권위주의적 정권이 민주화 투쟁으로 몰려나고, 정치적 민주화가 촉진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6].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성장 후 분배라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면서 부터이다[8].

1990년대 초 변형윤은 경제민주화를 민주적인 노조·농민조직·소비자조직의 결성, 실질적인 기업공개·주식분산,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금융자유화, 경제계획의 실질적인 신축화·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보았다[2]. 노규성은 경제민주화를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분산되고, 경제활동 주체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시장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8].

한편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분야 제119조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제1항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제2항을 들 수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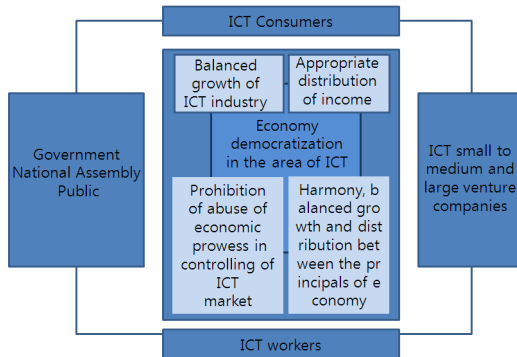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있다[9].

2.2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모델

한편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개념은 노규성에 의해 연구된 ‘디지털경제 민주화 모델과 실현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8],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균형적 경제의 성장과 부의 공정한 배분 등의 개념을 포괄하면 ICT 분야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ICT 산업을 이끌어가는 정보통신산업 내 경제주체들의 경제민주화를 의미하게 된다[6].

즉,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즉 디지털경제 민주화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균형 있는 ICT 분야에서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ICT 산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ICT 관련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균형적 성장과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이에 근거한 ICT 분야 경제민주화의 개념적 모

델은 [그림 1]과 같다.



[Fig. 1] Economy democratization model of ICT area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2.11, 40면, ICT 분야에 맞게 변형

결론적으로 ICT분야에서 경제민주화란 소득분배의 균형, 균형성장, 독과점 방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지방 및 수도권의 균형, ICT 노동자 처우개선, ICT 활용의 균형 등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6].

2.3 ICT 분야 재벌 계열사와 코스닥 상장사의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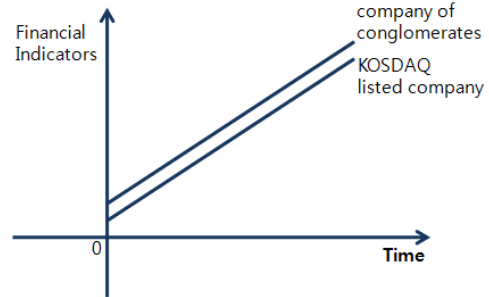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에서 동반 성장구조는 서로 함께 규모나 질이 이전보다 더 크거나 낮게 되는 구조를 뜻한다. 반대로 상극구조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맞서거나 충돌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동반 추락구조는 서로 함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4].

경제민주화 개념을 기반으로 재벌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간의 경제민주화 유형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부터 가장 최악의 형태 순으로 (1)완전한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2)상대적인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3)생대적인 경제민주화 미 실현구조, (4)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 (5)동반 추락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을 도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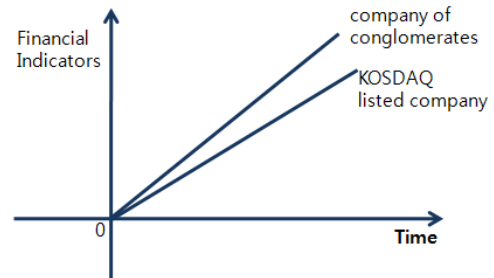
첫째,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중에서 최선의 구조인 완전한 경제민주화 실현구조는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완전한 경제민주화 실현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재벌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동반성장구조의 모습을 보여준다.



[Fig. 2] Diagram of relationship of realization structure for complete economic democrat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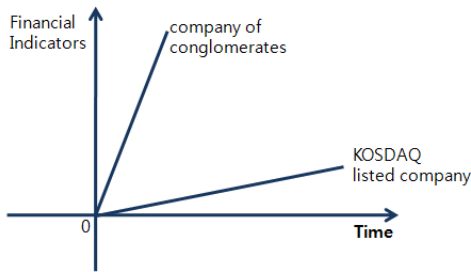
둘째,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중에서 차선의 구조인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실현구조는 [그림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벌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이 상대적으로 공동 이익의 방향으로 공존하는 상대적인 동반성장 구조의 모습을 보여준다.



[Fig. 3] Diagram of relationship of realization structure for relative economic democrat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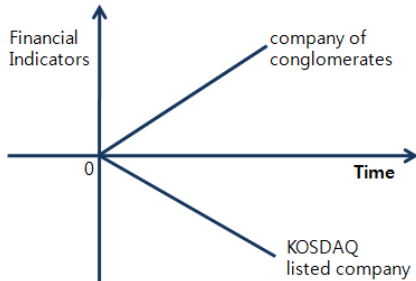
셋째, 경제민주화의 미실현구조 중에서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미실현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벌기업은 엄청난 성장 혹은 수익을 실현하는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 혹은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 여기에서의 6가지 상생구조 유형은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주관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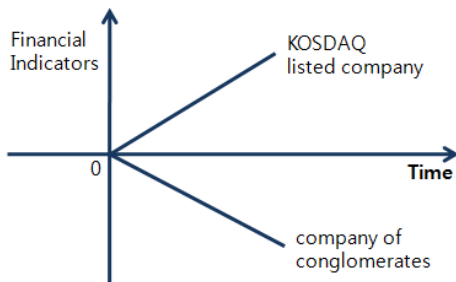
[Fig. 4] Diagram of relationship of unrealized structure for relative economic democratization

넷째,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 중에서 재벌기업 중심의 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는 [그림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5] Diagram of relationship of unrealized structure for complete economic democratization centered-around conglome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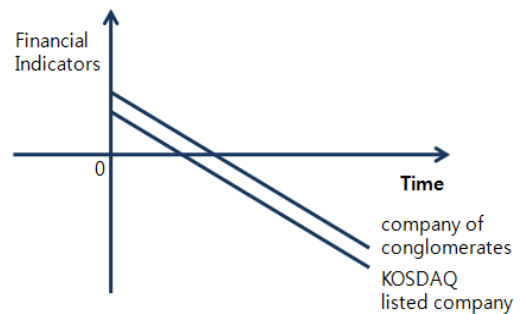
이는 시간의 흐름에 걸쳐 재벌기업은 성장 혹은 수익을 실현하는 반면에 코스닥 상장기업은 오히려 성장 혹은 수익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 6] Diagram of relationship of unrealized structure for complete economic democratization centered-around KOSDAQ listed companies

다섯째, 경제민주화의 미실현구조 중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중심의 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는 [그림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은 성장 혹은 수익을 실현하는 반면에 재벌기업은 오히려 성장 혹은 수익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경제민주화의 미실현구조 중에서 가장 최악의 구조인 동반추락구조는 [그림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벌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이 동시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Diagram of relationship of collective crash structure

이어서 이와 같이 분류된 재벌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유형 중 재벌 계열사 ICT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의 경제민주화 실패는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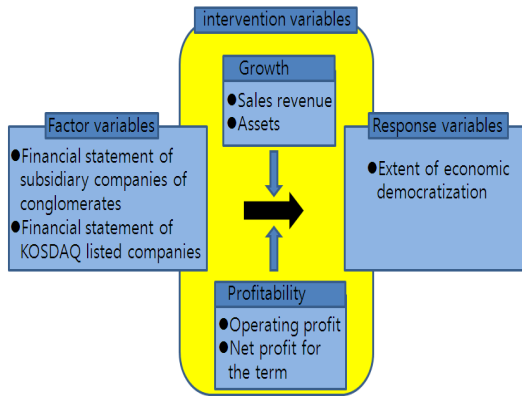
3. 연구설계

3.1 연구 모형

경제민주화의 실현정도는 이 연구의 제2장 2.2항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모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균형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적절한 소득분배 여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균형적 성장은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으로 분석되는 성장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소득분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분석되는 수익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12].

이와 같은 논리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 재벌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사이의 경제민주화 실현 정도와 경제민주화 실현 구조 유형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그림 8]과 같이 도출하였다.



[Fig. 8] Creation of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모형을 기반으로 ICT 분야의 재벌 계열사와 코스닥 상장사 간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각각 어느 경제민주화 구조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 간에는 매출액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 간에는 자산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 간에는 영업이익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4 :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 간에는 당기순이익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각 가설은 t-검정 통계량 방법을 통한 유의성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3.3 자료 수집

국내 재벌계열사와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대상은 (1)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매출 5조 원

이상 63개 재벌 계열사 중 13개 ICT 업체와 (2)최근 4년 동안 연속 매출을 낸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내용은 해당업체별 2008~2011년 각각에 관한 (1)매출액, (2)자산, (3)영업이익, (4)당기순이익이다.

3.4 자료수집 결과

먼저 63개 재벌 계열사 중 SW진흥법에 의해 공공 수가 제한된 13개 ICT 업체의 최근 4년간 평균 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13].

<Table 1> Trend of average financial structure of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in ICT area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Division	2008	2009	2010	2011
Sales revenue	6,931	7,363	9,432	10,728
Assets	6,234	7,310	9,763	11,130
Operating profit	459	600	691	643
Net profit for the term	394	420	656	748

그리고 최근 4년간 연속 매출을 낸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 40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5].

<Table 2> Trend of average financial structure of small to medium KOSDAQ listed companies in ICT area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Division	2008	2009	2010	2011
Sales revenue	320	362	425	572
Assets	408	497	586	747
Operating profit	32	44	47	38
Net profit for the term	15	36	25	12

4. ICT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분석

4.1 매출액 기준의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분석

이 연구는 연구설계에 따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ICT 분야에서 재벌 계열사 ICT기업 13개 업체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 40개 업체군 간의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 구조인지 아니면 미실현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두 개의 모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t-검정이라는 통계학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라는 2개 집단 간의 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평균 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10].

먼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평균 매출액은 <표 3>과 같다.

<Table 3> Trend of average sales revenues of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Division	2008	2009	2010	2011
companies of conglomerates	6,931	7,363	9,432	10,728
KOSDAQ listed companies	320	362	425	572

<표 3>에서 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차이 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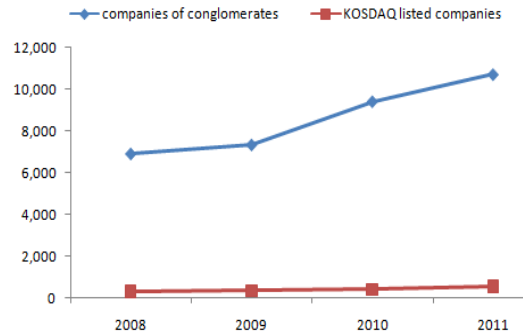
<Table 4> Results of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the average sales revenues between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Sales revenue	Levene's Equal Variance Test		T-test on the Identity of Average		
	F	Significance Level	t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Level (2-sided)
Equal Variance assumption	24.460	0.003	9.174	6	0.000
Heteroscedastic assumption			9.174	3.023	0.003

<표 4>에서 동분산 검정결과 $P=0.003 < \alpha=0.050$ 이고 t값 9.174에 자유도 3.023에서 $P=0.003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리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표 3>을 도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9]과 같다. [그림 3]은 앞서 살펴본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 중에서 [그림 4]의 형태인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미실현 구조의 관계도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Fig. 9] Realization structur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seen through the sales revenue

4.2 자산 기준의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분석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평균 자산은 <표 5>과 같다.

<Table 5> Trend of average assets of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Division	2008	2009	2010	2011
companies of conglomerates	6,234	7,310	9,763	11,130
KOSDAQ listed companies	408	497	586	747

<표 5>에서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연도별 평균 자산 차이 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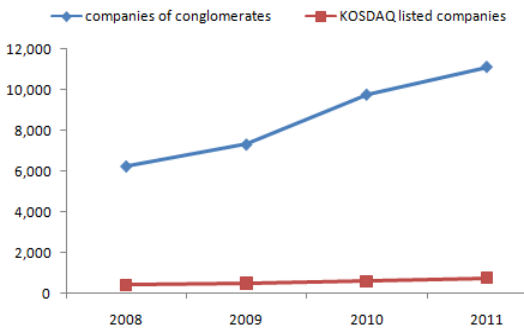
<표 6>에서 동분산 검정결과 $P=0.003 < \alpha=0.050$ 이고 t값 7.181에 자유도 3.025에서 $P=0.005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리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연도별 평균 자산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Results of examination of presence of differences in average assets between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Assets	Levene's Equal Variance Test		T-test on the Identity of Average		
	F	Significance Level	t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Level (2-sided)
Equal Variance assumption	23.478	0.003	7.181	6	0.000
Heteroscedastic assumption			7.181	3.025	0.005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표 5>를 도형으로 표현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은 앞서 살펴본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 중에서 [그림 4]의 형태인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의 관계도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Realization structur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seen through the assets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4.3 영업이익 기준의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분석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 중견 독립 ICT 기업군 그리고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평균 영업이익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연도별 평균 영업이익 차이 여부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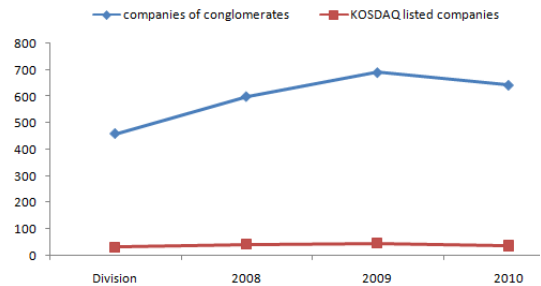
<Table 6> Trend of average operating profits of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Division	2008	2009	2010	2011
companies of conglomerates	459	600	691	643
KOSDAQ listed companies	32	44	47	38

<표 7>에서 동분산 검정결과 $P=0.074 > \alpha=0.050$ 이고 t값 11.136에 자유도 6에서 $P=0.000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리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Table 7> Results of examination of presence of differences in the average operating profits between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Operating profit	Levene's Equal Variance Test		T-test on the Identity of Average		
	F	Significance Level	t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Level (2-sided)
Equal Variance assumption	4.678	0.074	11.136	6	0.000
Heteroscedastic assumption			11.136	3.027	0.001



[Fig. 11] Realization structur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seen through the operating profit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이를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표 6>을 도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은 앞서 살펴본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 중에서 [그림 3]의 형태인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실현 구조의 관계도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4.4 당기순이익 기준의 경제민주화 실현구조 분석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표 8>과 같다.

<Table 8> Trend of average net profit for the term of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Division	2008	2009	2010	2011
companies of conglomerates	394	420	656	748
KOSDAQ listed companies	15	36	2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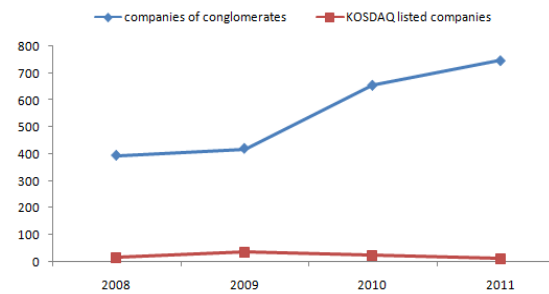
<표 8>에서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 차이 여부 검정 결과는 <표 9>와 같다.

<Table 9> Results of examination of presence of differences in the average net profits for the term between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Net profit for the term	Levene's Equal Variance Test		T-test on the Identity of Average		
	F	Significance Level	t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Level (2-sided)
Equal Variance assumption	50.022	0.000	6.083	6	0.001
Heteroscedastic assumption			6.083	3.023	0.009

<표 9>에서 동분산 검정결과 $P=0.000 < \alpha=0.050$ 이고 t 값 6.083에 자유도 6에서 $P=0.009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리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경제민주화 실현구조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표 8>을 도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는 앞서 살펴본 상생구조의 유형 중에서 [그림 5]의 형태인 대기업중심의 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의 관계도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Realization structur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seen through the net profit for the term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5.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1 분석 결과

이상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Table 10> Results of test of the hypothesis

Division	Contents	Results
Hypothesis 1	There w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les revenues between the group of subsidiary ICT company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ICT company group.	Accept
Hypothesis 2	There w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ssets between the group of subsidiary ICT company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ICT company group.	Accept
Hypothesis 3	There w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erating profit between the group of subsidiary ICT company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ICT company group.	Accept
Hypothesis 4	There w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et profit for the term between the group of subsidiary ICT company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ICT company group.	Accept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 간에는 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재무적 관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 관계에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그림 9]~[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액, 자산 및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간의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과 <표 2>를 토대로 기업규모별 네가지 재무지표의 성장률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외형을 나타내는 매출액과 자산은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각각 21.4%, 22.3%)이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각각 15.7%, 21.3%)이 더 성장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과 자산의 절대 액수를 보면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은 재벌 계열사 ICT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함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의 실속을 나타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이 각각 11.9%와 23.8%로 매우 높은 반면,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은 각각 5.9%와 -7.2%로 저조하게 나타나 재벌 계열사 ICT 기업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있다.

<Table 11> Growth rate for each of the financial indices of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Division	companies of conglomerates	KOSDAQ listed companies
Sales revenue	15.7	21.4
Assets	21.3	22.3
Operating profit	11.9	5.9
Net profit for the term	23.8	-7.2

결론적으로 국내 ICT 분야 경제민주화 구조는 미실현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의 경영상황 역시 취약한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5.2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패는 매우 취약한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이의 실현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오늘날 ICT가 미치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현은 매우 시급한 정책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제도가 있지만, ICT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즉 ICT 분야의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거래 제도화와 이에 대한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ICT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후속적 개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과정에서 IT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상생협력 정책 등 IT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정책적 차원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책무로서 ICT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기반 마련, ICT의 국가사회적 기여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정 기반 형성 및 IT산업 관련 자본가, 경영자, 노동자 등 구성원들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마인드 제고 노력과 범사회적 운동 전개 등도 요구된다[8].

6. 결론

본 연구는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관계는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를 보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재벌 계열사 ICT기업군과 비재벌 ICT기업군간의 비상생구조하의 경제민주화 미실현 구조를 통계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의 함수 관계도 유형을 문헌연구를 통해 임의로 6가지로 정의한 점, 매출, 자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추이의 차이만을 가지고 기업군의 관계 구조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점,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중소 ICT 기업군을 직접 비교하지 못한 점, 기업군내에서도 패키지SW, ICT서비스 등 업체별 차이를 감안하지 못한 점 등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향후의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Ahn, Seok Gyo, Ideologies and realities of industrial democratization, Issue No. 7 of the Collection of Treatises of the Korean-German Academ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p.22, 1989.
- [2] Byeon, Hyeong Yoon, Significance and task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Byeon, Hyeong Yoon et al, Path of Economic Democratization, Bibong Publication, 1992.
- [3] Constitutional Law of Republic of Korea, <http://www.lawnb.com>.
- [4] DAUM Dictionary, <http://dic.daum.net>.
- [5] DAUM Securities, <http://stock.daum.net>.
- [6]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Study on the Win-Win Co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Policy of Ecosystem of Broadcasting &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012.11.
- [7] Kwon, Dae Ik Reporter, Hankook Ilbo, "Re-emergence of Marx due to global financial crisis", 2012, 9. 21.
- [8] Kyoo-Sung Noh, Democratization model for digitalized economy and the conditions for its realiza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0, No. 5, 2012. 6.
- [9] Law on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small to medium and large companies, <http://www.law.go.kr>.
- [10] Lee, Sang Bae Reporter, KOREA Economy, "[Special Report] Where is Korean Economy headed?", 2011. 6. 10.
- [11] Noh, Hyeong Jin; Jeong, Han Yeol, Introduction to Statistical Analysis by PASW(SPSS), Hanol Publication, 2010.
- [12] Paul D Kimmel, Financial Accounting: Tools for Business Decision Making, Jossey-Bass., 2013. 2. 26.
- [13] Public announcements by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http://dart.fss.or.kr>.

노 규 성(Kyoo-Sung Noh)



- 1984년 2월 : 한국외대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5년 8월 : 한국외대 대학원 경영정보학과(경영정보학 박사)
- 2003년 3월 ~ 2010년 2월 : 中國 延邊科學技術大學 兼職教授
- 1997년 9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04년 12월 ~ 현재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 2012년 7월 ~ 현재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회장
- 관심분야 : 디지털정책&스마트융합, 디지털경제 민주화, 디지털혁신
- E-Mail : ksnoh@sunmoon.ac.kr

김 신 표(Shin-Pyo Kim)



- 2009년 2월 :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경영정보학 박사)
- 1999년 12월 ~ 현재 : 한국경제예측연구소 소장
- 2008년 9월 ~ 현재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사무처장
- 2013년 3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경제민주화, ICT산업, e-Business, 계량경제학
- E-Mail : master@kefori.co.kr